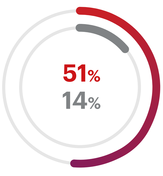
지속가능성에 관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소비자의 인식

아태지역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 16,000여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베인앤드컴퍼니의 설문조사로 아태지역
소비자 특유의 소비 성향이 확인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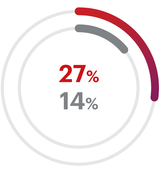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아태지역의 소비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태지역 소비자는 서양의 소비자에 비해 환경, 사회적 이슈와 건강에 대해 보다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 '건강'을 소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소비자의 비율
- '환경'과 '사회성'을 소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소비자의 비율



아시아·태평양



유럽

신흥 시장일수록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일본, 호주, 싱가포르의 소비자보다는 중국, 인도, 태국의 소비자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과 '사회성'을 소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소비자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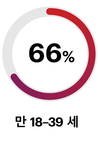
17% 신흥 시장

9% 성숙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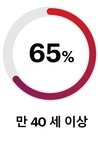
이와 같은 결과는 환경 문제가 소비자의 실제 생활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층이 신흥 시장에서는 보다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연령과 소득 수준을 초월하여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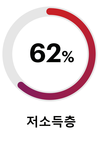
재화를 소비하는데 있어 지속가능성을 중요한 잣대로 고려한다고 답한 소비자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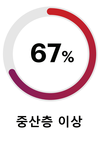
만 18–39 세



만 40 세 이상



저소득층



중산층 이상

아태지역 소비자의 경우, 자신이 선호하는 지속가능 제품을 다른 이들에게 소개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속가능 제품을 사용한 경험이 만족스러웠을 경우, 아태지역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소개, 홍보하려는 성향

~80% 환경, 사회성의 측면에서 자신이 만족하였던 지속가능 제품을 타인에게도 소개하는 아태지역 소비자의 비율

~50% 10명 이상의 타인에게 소개하는 등 자신이 만족하였던 지속가능 제품을 타인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아태지역 소비자의 비율

아태지역에서 성과를 내는 기업은 아태지역 소비자의 성향에 맞는 **지속가능 제품**을 공급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업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참고: 조사 대상 국가는 싱가포르, 호주, 일본,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소득 수준 구분은 국가별로 별도 구분하나, 하위 40%는 저소득층, 하위 40-80%는 중산층, 상위 20%는 고소득층으로 구분하는 공통 기준을 적용.

출처: Bain Asia-Pacific ESG Survey 2021 (n=16,824)

BAIN & COMPANY